

◎ '80년대의 韓·中共관계를 주제로 한 學術會議가 지난 11月 18日 세종문화회관 사회의실에서 열렸다. 建國大 중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이 회의에서는 「최근의 中共 노선과 韓·中共관계의 展望」 朴斗福박사(외교안보연구원), 「經濟관계의 평가와 전망」 吳鎭龍박사(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소), 「韓·中共간의 해양의 개발과 경제」 朴椿浩교수(高大), 「中共 簡化學 연구 결과에 있어서의 문제점」 成元慶교수(建國大) 등의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韓國學術振興財團은 최근 국내 학술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外國 學術雜誌 綜合目錄」(자연 및 응용과학편)을 발간했다. 지난 81~82년도의 인문·사회과학편(1만 6백 75종 수록)에 이어 펴낸 이 종합목록에는 전국 각 대학도서관과 5개 특수도서관이 所藏중인 7천 3백 49종(東洋관 1천 8백 54종, 洋관 5천 4백 95종)의 자연 및 응용과학 분야 외국 학술잡지 목록이 총 1천 39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 基礎學問 중 소외당하는 분야의 研究 및 著述活動을 증진 지원해 온 大宇財團이 그동안에 모아 온 연구논문을 정리, 「大宇學術叢刊」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民普社刊). 지금까지 약 5여권을 투입, 인문사회과학 분야 95건, 자연과학 분야 87건 등 총 1백 82건의 학술 논저를 지원하고 있는 同財團이 현재 집필이 완료된 46건 중 25건을 우선 7권의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번에 선보인 이 학술총서 7권은 자연과학 분야 3권과 인문사회과학 분야 4권으로서 다음과 같다. 「질소고정」 宋承達교수(慶北大), 「미스바우어分光學」 玉恒南교수(延世大), 「국소적 형태의 아티야-싱어지표이론」 池東杓교수(서울大), 「韓國語의 系統」 金芳漢교수(서울大), 「文學社會學」 김현교수(서울大), 「日本の 萬葉集」 金思燁교수(東國大).

◎ 歷史學會(회장 車河淳)는 지난 12月, 「歷

史學報」 제 1백집을 내면서 기념 別冊 부록으로 「歷史學報(제 1~1백집)總目錄」을 펴냈다. 이 목록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기타로 나눈分野別, 筆者別 색인과 年度別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다.

◎ 서울大 經濟研究所에서는 케인즈와 슈케터의 단신 1백주년을 맞아 그들의 經濟觀 및 經濟理論을 재음미하고, 한국경제의 운영 발전에 대한 교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月 10日 서울大 교수회관에서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 모임의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슈케터의 經濟學體系와 思想」 姜命圭교수(서울大), 「後케인즈派에 대한 理論的 考察」 嚴永錫교수(외국어大), 「케인즈의 社會思想과 今日的 不況」 金秀行교수(한신大), 「케인즈와 슈케터—그 學問과 思想의 比較」 趙淳교수(서울大).

◎ 韓國教育學會 教育哲學會는 창립 19주년을 맞아 지난 12月 10日 유성관광호텔에서 「韓國 教育哲學의 方法論的 反省」이라는 주제로 年次 學術發表會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吳麟鐸교수(延世大), 黃源永교수(檀國大), 李敦熙교수(서울大), 金仁會교수(延世大) 등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 韓國社會學會는 지난 12月 10日 成均館大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金一鐵 서울大 교수를 선임했다.

韓國政治學會도 12月 12日 梨花女大에서 연차총회를 갖고 閔丙天 東國大 法政大學長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韓國行政學會는 12月 19日 서울大 교수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姜信澤교수(서울大)를, 부회장에 白完基교수(高麗大)와 崔同燮씨(總務處)를 각각 선임했다.

大韓國際法學會도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崔澈熙 釜山大 總長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